

게리 예이츠 박사, 제12권, 세션 23, 오바다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12장에 관한 강의 시리즈에 있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오바다에 관한 강의 23입니다.

성경의 정경을 신실하게 읽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구절과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정경의 불편한 부분 중 하나는 분명히 나훔서에서 하나님의 폭력과 앗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12장에 있는 책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바다서에서 에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불쾌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감성과 감성이 어딘지 모르게 충돌하기 때문에 단순히 편집하거나 삭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그림과 상호작용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락한 세상에서도 악한 나라들과 악한 군대들과 폭력과 전쟁을 사용하여 왕국에 최종적인 해결이 있을 때까지 어떤 의미에서 그의 정의를 성취하시는지에 대한 신비를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그분을 신뢰하고, 옳은 일을 행하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땅의 심판관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훔서와 오바다서를 읽을 때 갖게 되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거기에서 제기되는 모든 쟁점과 신정론과 문제들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구원의 책들에는 놀라운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나라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러한 폭력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이끌어 내실 것이며, 궁극적으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평화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전쟁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일로 전쟁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희망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심판의 긍정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서 오바다로 넘어가기 전에 나훔의 관점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나훔서에서 니느웨 사람들과 앗수르 사람들에게 닥칠 운명의 역전을 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끔찍한 일들과 끔찍한 일들에 대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구체적인 심판과 폭력을 내리시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심판이나 그들이 다른 나라에 행한 악한 일들을 궁극적으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빌로니아 연대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바빌론이 앗시리아에 행한 일의 반향은 앗시리아인이 다른 민족들에게 행한 일을 분명히 반영합니다.

나훔서에는 운명이 역전되고 앗수르가 정당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생각, 즉 그 생각이 강조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앗수르인들이 자신들에 대해 말했던 수사법, 이데올로기, 비유 중 일부가 나훔서에 사용되어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을 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리아 왕들은 종종 자신들의 군대를 선보였으며, 자신이나 그들의 신을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들이 정복하고 폭풍처럼 복종시킨 사람들을 압도할 폭풍의 신처럼 자주 제시했습니다.

앗시리아 왕 중 한 사람은 휩쓸어버릴 엄청난 홍수가 되거나, 앗시리아의 신인 아다드는 폭풍의 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왕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폭풍우처럼 우르르 소리를 내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래서 이를 뒤집어서 나훔은 '아다드도 아니고 아시리아인도 아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폭풍이십니다. 폭력과 악한 자들은 이 일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책의 희망이다. 하나님은 폭풍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는 폭풍의 신입니다.

그리고 앗수르 사람들이 폭풍처럼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나라들을 대적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1장 4절은 용사이신 하나님이 바다를 꾸짖어 말리신다고 말합니다. 그가 모든 강을 말리시고 그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 땅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자가 들끓느니라.

그래서 앗수르 왕들은 단지 큰 소리로 적을 물리치는 것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음, 하나님은 궁극적인 폭풍의 신이시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아시리아 사람들을 압도하실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계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네 이름이 네 신들의 집에서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조각된 형상을 잘라내겠습니다. 내가 네 무덤을 만들겠다. 네가 사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앗수르 폭풍의 신들과 싸워 그들을 압도하고 이기실 것입니다. 1장 7절과 8절, 주님은 선하시다. 그분은 환난 날에 산성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자기에게 피신하는 자들을 아시나, 넘치는 홍수로 그 대적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 대적들을 흑암 속으로 쫓아내실 것입니다. 이 심판이 임하고 이 폭력과 멸망이 앗수르 사람들에게 가해질 때,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피난처를 마련하실 것입니다. 이제 나훔이 여기에서 엄청난 홍수와 폭풍의 신이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앗수르인의 손에 의해 유다에 대해 이사야가 선언했던 심판을 직접적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9절부터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해요. 이것만 들게 해주세요. 여기서 읽고 싶은 구절은 8장 7절과 8절입니다.

8장 7절과 8절은 앓수르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여호와께서 크고 많은 강물과 앓수르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을 그들에게로 들이실 것이라. 그 물이 그 모든 수로 위로 솟아오르고 그 모든 독을 덮고 유다를 휩쓸 것이며

그것이 넘쳐서 목에까지 미치고, 그 펼쳐진 날개가 네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러므로 앓수르 군대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쳤을 때, 그들은 그 나라를 휩쓸고 가는 큰 홍수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의 신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같은 방법으로 앓수르를 치러 오실 것입니다. 2장 1절과 10절의 니느웨 포위 공격에 대한 설명에서 그 성을 공격하는 대적은 제방과 댐을 풀어 그 성에 물이 넘치게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이사야서 8장의 심판을 매우 효과적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시리아 왕들의 수사법을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왕들은 종종 자신들을 강력한 사자나 사자 사냥꾼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사자와 백병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왕실 인장이 하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는 아시리아 왕들의 부조와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기원전 3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기서 그들은 사자와 싸우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위대한 사자 사냥꾼인 왕은 어떤 군대나 천적이 공격하더라도 자신의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보호하고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중심에는 타락한 사자에 대한 조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니네베 성은 사자 굴과 같았습니다. 왕은 나가서 찢고 먹이를 찢고 그 먹이를 니느웨로 가져왔습니다.

종종 아시리아 사람들의 적들은 도시로 다시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행진을 했고, 고문을 받은 후 처형되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역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사자가 스스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9세기에 아슈르나시르팔(Ashurnasirpal)은 내가 포효하는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앗수르의 수사법을 뒤집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제가 읽고 싶었던 이사야서 5장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사자처럼 포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 사자처럼 포효하고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움켜잡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가는데 아무도 그것을 구출할 수 없습니다.

그 날에는 그들이 바다가 으르렁거리듯 그것 때문에 으르렁거릴 것이다.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보이느니라.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닥쳐올 무서운 심판과 멸망을 백성들에게 묘사하려고 할 때, 앗수르는 울부짖는 사자였습니다.

이제 나훔서에서는 앗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서 그 울부짖는 사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시리아 군대는 잘린 머리와 잘린 팔다리, 그리고 그들이 정복한 도시 앞에 시체와 시체, 머리를 쌓아두거나 포로의 가족을 버기거나 막대기에 찢어넣는 것으로 다시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 시체 더미와 유혈 사태, 폭력, 이제 이것이 가해질 것입니다.

운명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장 3절에서 이에 대해 읽습니다. 기병들이 돌진하며 번쩍이는 칼과 번쩍이는 창과 죽임을 당한 무리와 시체가 무더기요 시체가 끝이 없어 그 시체들 위에 넘어지나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나훔서에는 운명의 반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니네베가 다른 나라들에게 행한 일이 그들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관참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것을 실행하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은 역사 전반에 걸쳐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에돔 사람들을 다루는 오바댜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 뒤에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다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열국에 행한 잔학행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바댜의 메시지는 에돔 사람들의 교만과 바벨론 포로 기간 즈음에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 바벨론에 연루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역사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댜는 12장 앞부분에 위치한다.

오바댜서 당시에는 이에 관해 여러 가지 다른 제안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서 문제의 일부는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 사이에 역사 전반에 걸쳐 계속되는 다양한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원전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때는 에돔이 마침내 나바테아 아랍인들에 의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난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범위가 넓습니다. 이것을 9세기에서 4세기 사이로 추정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그것이 12장 시작 부분에 가깝다는 사실을 보았고 그것을 더 이른 날짜에 대한 논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오바댜서가 주제적인 이유로 12장에서 특정 위치에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셔서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오바댜의 메시지와 주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에돔 사람들의 멸망에 관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언으로 이끄는 연결어와 표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날짜와 설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바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단순히 주님의 종을 의미합니다.

나는 구약에 오바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13명의 인물이 있다고 믿습니다. 흔한 이름이에요. 아마도 이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름이 오바댜인 아합의 조언자일 것입니다.

그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아합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끔찍하고, 불경건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수석 조언자 오바다는 주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바다가 바로 그 특별한 오바다였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마도 바벨론 위기의 시기에 사역한 선지자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배경, 오바다는 이 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도 불구하고 12장에 나오는 바벨론 선지자들 중 또 하나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유다를 공격하는 데 가담했고,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굴복시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의 유다 침공을 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것을 두 나라가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쪽에 있는 유다의 영토를 빼앗을 기회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유다의 약점을 기회로 삼아 처음에 유다에게 잃었던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바벨론 위기 당시 에돔과 유다 사이에 이런 종류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확증해 줍니다.

남쪽의 중요한 요새였던 아랏 시의 편지와 비문, 지층을 보면 그곳에 있던 군사 지휘관들이 에돔 사람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과 합세하여 유다를 징벌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그들은 또한 이것을 영토를 되찾고 탈환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바다 사이와 에돔과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 모든 갈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갈등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할 때 에돔은 그것을 자신들의 이익과 대의를 증진할 기회로 이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바다서는 낙담한 사람들,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는 냉소적인 유배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록되었으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적들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해진 이 패배는 다른 나라들의 신들이 그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들을 사용하여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패배시키실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는 바벨론의 침략과 유다의 공격에 에돔이 가담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들의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나는 이것이 아마도 우리가 오바다서에서도 봐야 할 배경과 배경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바다서의 여러 구절로 구성된 오바다서는 예레미야서 49장에 나오는 에돔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메시지와 거의 똑같습니다. 따라서 메시지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위기 중에 에돔을 대적하여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는 오바다가 자신의 책에서 설교한 메시지와 매우 유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오바다를 빌렸는가? 오바다는 예레미야를 빌렸는가? 공통된 전통이 있나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정식으로 이 두 책이 서로 반향을 일으키고 동일한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는 에돔 사람들을 향한 극도로 가혹한 심판의 말씀이 있고 여기에는 꽤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과 이 갈등을 조금 더 잘 이해하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 사람을 기억하소서. 예루살렘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함락되었을 때,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기뻐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 곳을 이용했으며, 느부갓네살이 그 도시를 포위하기 위해 사용한 용병 부대의 일부였을 수도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말했듯이 그것을 맨손으로 놓으십시오. 기초까지 맨손으로 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에돔 사람들의 범죄입니다. 오바댜도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그들에게 의를 행하실 것이지만, 에돔 사람들도 이 일에 참여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 두 사람에게 “너희 어린 것을 데리고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묵상에서 너무 자주 생각하거나 찬양하고 싶은 구절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도시들을 동일한 유형의 군사 침략과 동일한 유형의 잔학 행위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 그러한 잔혹행위가 그들에게 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이 일들을 바로잡을 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 있는 폭력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표준의 일부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폭력과 전쟁,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관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현대적 감성과 감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제기해야 할 타당한 윤리적 질문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악함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상기시키는 것이며, 어느 시점에서는 폭력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폭력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행동하시고 개입하시며,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평화의 왕국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서 전체에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족속 사이의 오랜 갈등의 역사가 언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에돔 족속이 이 사건에 관여한 구체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위기를 둘러싼

오바댜 외에 우리가 살펴볼 또 다른 구절은 애가 4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리고 애가는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입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잔이 네게도 지나갈 것이라

너도 취해서 벌거벗을 것이다. 시온의 딸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그분께서는 당신을 더 이상 유배 생활에 가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딸 에돔아, 그분께서는 네 죄악을 벌하시고 네 죄를 드러내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에돔 사람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영토를 되찾는 기회로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폭력에 가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에 대한 다른 예언적 신탁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레미야 49장을 언급했지만, 에스겔 25장, 에스겔 32장, 에스겔 35장, 요엘 3장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타락한 다윗의 집이 궁극적으로 에돔의 남은 자들을 어떻게 소유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언서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이제 오바다서 자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데에는 두 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구체적인 이유는 이 책의 첫 부분 1절부터 9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의 과도한 교만으로 인해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에돔 사람들의 교만함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까? 글썄요, 그들은 자기 땅의 지리적 특징 때문에 적의 공격에 무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적들에 맞서는 천연 요새와 요새가 있다고 믿었던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불다는 뜻의 에돔이라는 이름은 그 곳에 있는 바위와 산이 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 바위와 절벽과 산 때문에 에돔 사람들은 그들이 그곳에 숨을 수 있고 적의 공격에 무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바위 틈에 사는 자여,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존심의 원천이었습니다. 네 높은 거처에 거하며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는 자여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솟아오를지라도 네 보금자리가 별들 사이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끌어 내리리라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의 산과 바위와 절벽과 바위와 요새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그곳을 침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돔의 교만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오바댜서의 첫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책이 에돔을 공격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혼란스러운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다가 에돔을 공격하는 적군이 나옵니다(5-7절). 그러나 우리는 8절과 9절에서 그들에게 이러한 공격과 공격을 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날에 에돔에서 지혜자를 멸하며 에서 산에서 총명한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데만아 네 용사들이 놀라고 에서 산의 모든 사람이 나의 살륙으로 말미암아 멸망되리라 이 교차 구조가 하는 일은 5절에서 7절까지 군대의 침공을 궁극적으로 무너뜨리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진술로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과 에돔 족속의 싸움의 끝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처음부터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해결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과 에서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두 형제는 서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결국에는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처음 그런 일이 일어나자 에서는 형이 행한 일 때문에 형을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 중 하나는 에서가 그의 형 야곱 및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기로 합의했을 때 그들이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통틀어, 군주제 시대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에돔 사람들을 정복할 것이고, 에돔 사람들은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 위기 때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향해 끊임없이 공격과 살인, 폭력에 가담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에돔의 교만을 인하여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것은 10절부터 14절까지에서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네가 네 형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네가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끊어지리라 그날 당신은 냉담하게 서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그의 재물을 약탈하고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하나와 같았느니라.

당신은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그 보물을 약탈하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에 당신은 유다를 공격했거나 이에 연루된 인간 군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네 형제가 화를 내는 날에 그를 기뻐하지 말라.

유다 백성이 멸망하는 날에 그들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고난의 날에 자랑하지 말라. 내 백성이 재난을 당하는 날에 그들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13절에 보면 재난이라는 단어는 에돔인데, 내 생각에는 분명히 에돔이라는 단어의 유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day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에돔은 당시 유다에게 일어난 일에 공모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와의 날이 에돔 사람들을 치러 올 것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14절까지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판단, 과도한 자부심, 지리적 위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공격과 유다의 멸망에 대한 연루입니다. 이제 유다의 날이 에돔 사람들을 치시는 여호와와의 날이 되리라.

그래서 오바댜서의 마지막 부분은 모든 나라를 향하여 임할 여호와와의 날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여호와와의 날이 모든 나라에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요, 네 행위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처벌은 범죄에 적합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서 공의를 이루십니다.

네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처럼 또 예루살렘의 멸망에 그들이 참여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나라가 계속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시고 삼킬 것이며, 마치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가담한 나라들은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을 회복시키리라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시온 산을 회복시키리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와의 날을 겪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와의 하루를 겪고 마침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에돔과 다른 나라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에 임하신 여호와와의 날이 이제 에돔 족속에게도 임하리로다.

오바댜가 여호와와의 날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다른 예언서에서 보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언적 환상은 가까운 사건과 먼 사건을 하나로 묶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나라에 임할 심판이 있을 것이며 에돔 사람들도 그 일부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군사적 목적과 목표와 목표를 수행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에돔도 이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예언적 환상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 이상으로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유다에게 내린 심판은 결국 에돔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있는 다른 백성들에게 임한 심판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포함하게 될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시온에 자신의 왕국을 재건하시는 전주곡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온 산에는 피하는 자가 있으리니 그곳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집은 자기의 산업을 얻으리라.

야곱의 집은 불과 같을 것이며 요셉의 집은 불꽃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에돔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산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들의 멸망이 임박한 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모든 적들의 심판을 보기 위해 그 너머 먼 미래를 내다보십니다. 그것은 이 예언적 비전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낙담한 백성을 격려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냉소적인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일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성취되었는가? 여기에는 12경에 나오는 여러 책을 연결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과 오바댜서에는 에돔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소선지서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논쟁의 일부입니다. 말라기서 끝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이 모든 심판, 앗수르의 위기, 바벨론의 위기, 포로기 이후의 박탈을 겪은 후에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에서가 아니냐 야곱의 형이니라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산간 지방을 황폐하게 하고 그의 기업을 광야의 자칼들에게 맡겼느니라.

에돔이 우리가 패망하였다고 하되 우리가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은 건축할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리고 그들은 악한 나라,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불릴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눈으로 보고 말하기를 여호와는 이스라엘 국경 너머에서 위대하시도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일련의 심판으로 우리를 강타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일어난 일과 장차 에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을 비교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 사람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의 땅은 침략을 당했고, 그들은 재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원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에 대한 심판이 최종적이라는 사실과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야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지만 결국에는 에서와 에돔 사람들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기는 오바댜서에 주신 약속과 예언, 이 예언이 이루어졌고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는 두 단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에 참여한 직후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이 있는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에돔도 같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케네스 호글랜드(Kenneth Hoagland)는 오바다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에돔의 멸망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문학적, 고고학적 다양한 증거를 통해 나보니두스가 6세기 중반에 서방을 상대로 원정을 벌이는 동안 에돔을 공격하고 멸망시켰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53년 나보니두스 왕의 연대기인 바빌로니아 연대기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40년이 채 안 된 그 해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교만하여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회주의적 욕망을 위해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유다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가까운 미래에 그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생각에 이 일의 두 번째 성취는 유배 기간 이후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말라기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5세기에 에돔 사람들은 나바테아 사람들의 침입으로 마침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궁극적으로 나바테아인들은 이 특정 나라에서 에돔인들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페트라(Petra) 도시의 사진을 보았거나 그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면 이 놀라운 도시와 건물이 바위 속에 바로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페트라는 그 땅에 있던 에돔 사람들을 대체한 사람들인 나바테아 사람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이제 성경 역사와의 또 다른 연관성은 신약에서 헤롯이 언급되고 헤롯은 에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실제 에돔 족속의 육신적 후손이었다는 뜻이든, 아니면 단순히 이 영토에 살았다는 의미이든, 그는 궁극적으로 오바다서에서 말하는 사람들과 이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말라기서에서. 결국 그는 여러 면에서 궁극적인 에돔인의 표현이다. 그들은 적대적입니다.

그들은 에돔 사람들을 상대로 살인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애의 계약을 배반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삶에서 그런 예를 보여줬고, 그는 이 역사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빌론의 유다 침공에 에돔인이 관여한 것과 바빌로니아인이 유다 땅을 공격한 것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언급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에는 에돔 족속과 에돔과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는 것에 관한 협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7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에서 한 무리의 사신들이 시드기야와 그의 고문들과 그의 군사들과 의논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군사동맹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그 회의와 그 회의는 예루살렘에서 기원전 593년에 열렸습니다. 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예레미야는 이들 사절들에게 경고했고, 이들 여러 나라에서 온 대사들에게 어떤 형태의 동맹, 바빌론에 대항하는 어떤 형태의 연합도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목에 멍에를 메고 도시를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바벨론 왕에게 복종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593년에 에돔 사람들과 유다 지도자들이 동맹을 맺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을 때 에돔 사람들은 적이었고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과 연합했습니다.

이는 구약 전체에 걸쳐 에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전체 역사를 어느 정도 반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흥미로운 메시지, 흥미로운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두 가지 심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훔서에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여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십니다. 오바댜서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과 나바테아

사람들을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에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묻는 질문은, 때로는 구약전서를 가르칠 때 다루어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가 신경쓰나요? 오래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들을 대하시는 일을 생각할 때 이 중 어떤 것이 우리에게 어떤 관련성이나 의미를 갖습니까? 나는 나훔서와 오바다서 모두 단순한 역사 교훈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들에서 나오는 지속적인 신학적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과거에 에돔을 심판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책도 하나님이 역사에 계속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열방의 최후 심판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말론적 미래에도 계속될 사물의 패턴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노아 언약을 어기고 폭력과 유혈과 이런 모든 일을 자행한 것에 대해 여전히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열방에게 전할 지속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앗수르의 죄를 영속시킬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역사적으로 심판하시거나 종말론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과 같은 민족이 저지른 범 죄를 나라들이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적들과 그의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라나는 지속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단순히 역사적 메시지 그 이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몇 가지 구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훔 3장 4절부터 7절. 다시 돌아가서 이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니네베가 음란한 창녀로 멸망한 것은 니느웨가 그 힘과 부를 인하여 열방을 유혹하고 꾀어 그와 동맹을 맺게 하고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니네베에 내린 화는 이같이 말하노라 음행의 무수한 음행 곧 그 음행으로 나라들을 미혹하며 그 음행으로 백성을 미혹하는 음녀의 무수한 음행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네 치마를 네 얼굴 위로 높이리니 내가 열방으로 네 벌거벗음과 수치를 보게 하리라. 이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략과 매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억압하고 노예화한 이 매춘부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는 매우 강력한 은유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마지막 제국과 적그리스도 제국, 즉 말세의 마지막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 혹은 1세기에 반영된 로마제국의 심판을 살펴보면, 그 제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끝까지 계속될 하나님의 원수들을 반영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요한계시록 18장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마귀들의 처소와 모든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이 되었느니라.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매춘부 이미지는 주로 성적 취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권력과 부를 핑계로 다른 나라들을 유도하고 유인하여 억압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대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나훔 3장에 나오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은 장차 일어날 큰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정확히 유사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악하고 사악하고 압제적인 제국들을 역사적으로 심판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앗수르 제국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바벨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로마가 여러 면에서 단순히 바벨론 제국을 다시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구약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폭력적이고 사악한 제국을 무너뜨리셨다는 예표가 있습니다. 앗시리아든 바벨론이든 하나님은 로마에도 똑같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패턴은 가깝고 가까운 미래 너머와 요한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장래와 다른 제국과 및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의 나라가 장래에 계속되기를 바라보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고 장차 열국을 심판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과거에 그들을 심판하신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끝까지 작용할 패턴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의 마지막 제국은 그것이 로마이든 먼 미래의 어떤 제국이든 적그리스도가 바빌론 시내나 바그다드 시내에 본부를 세울 것이라고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전반에 걸쳐 계속될 패턴입니다. 나는 미가서 5장 1절부터 6절을 볼 때에도 같은 내용을 본다고 믿습니다.

다윗의 가계에서 왕이 나올 것인데, 그는 다윗을 회복시키고 그 땅에 들어오는 앗수르 사람을 물리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때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사용하여 그의 적들을 물리칠 때 그곳의 적은 앗수르인으로 묘사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시리아인들의 대부흥이나 소생이 있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너뜨리실 제국과 나라들과 하나님의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루셨던 것과 같은 제국과 같은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빌론. 나는 이러한 민족의 대표적 사용이 구약성서의 에돔 사람들의 심판을 볼 때에도 반영된다고 믿습니다. 예언을 통해 일하면서 발견하는 패턴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가져오실 일종의 평화와 번영, 축복의 왕국입니다.

그 구절들은 종종 에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에 관해 이야기하는 구절들과 분명히 병치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푸실 이러한 축복은 이사야 35장에서 에돔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에스겔서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36장과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른 뼈와 그 모든 가운데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약속은 다음과 같은 진술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에돔 사람들의 심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반드시 에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물리쳐야 할 큰 세력이 될 것이고,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말을 타고 나가실 때 그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에돔 사람에 대한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내리실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3장은 이 일을 하는 전형적인 구절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한 사람이 에돔 땅 보스라에서 오는 것을 보는데 그 사람에게 포도주 얼룩이 묻어 있습니다. 그가 포도주 틀에 있으면서 포도즙틀에 있는 포도를 짓밟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인물, 이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우리는 그 인물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전사로서 에돔에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옷에 묻은 것은 포도주 얼룩이 아니라 그의 원수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국들에게 집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나라들을 포도주 틀에 짓밟는 것에 비유됩니다.

에돔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아, 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지는 이사야 63장에서 직접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 얼룩이 묻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돌아오는 분이 야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민족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그의 심판으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용사를 세우시느니라.

그러므로 오바댜서에 나오는 에돔에 대한 심판, 나훔서에 나오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은 단순히 우리에게 역사적 실물교훈이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역사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심판을 상기시켜 줍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시대 전 8세기, 6세기, 5세기에 나라들을 심판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나라들이 노아 언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또한 오늘날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노아 언약의 명령을 성취할 책임을 물으십니다. 내가 여기서 제기하고 싶은 마지막 문제이자 생각은 대중적인 예언 치료법이 종종 '성경의 예언에 미국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이사야 9장과 같은 구절을 취하여 이것이 미국의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라고 말하는 The Harbinger와 같은 인기 있는 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언에서 미국을 다루는 명시적인 구절은 없지만, 이 구절은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서의 예언에 관해 자주 하는 일은 끔찍한 해석학적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거나 그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을 때 이스라엘을 미국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관한 이 구절들은 궁극적으로 미국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해석학적 단계는 두 가지 특별한 이유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첫째, 신학적으로 나쁘다.

하나님은 미국을 포함하여 그 어떤 나라와도 맺지 않은 특별한 언약 관계를 이스라엘과 맺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같은 억압받는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앗시리아, 바벨론과 같은 더 강력한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나쁜 역사적, 정치적 비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앗시리아나 바빌로니아와 같은 방식으로 악한 제국이 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범죄를 영속시키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의 억압, 폭력, 탐욕, 학대, 불의를 따르는 방식으로 악한 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읽은 책인 Peter Leithart의 책 *Between Babel and Beast*의 인용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미국을 제국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국을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미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이스라엘과 동일시해야 할까요? 나는 그가 여기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관점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며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는 기독교적 가치와 준기독교적 미국주의 이데올로기에 영감을 받아 미국이 많은 강대국보다 더 자비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세계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또 하나의 강대국이자 세계의 또 다른 국가일 뿐입니다. 세상을 우리의 이미지로 만들고자 하는 한 우리는 바벨이다.

우리는 짐승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치적 목적에 도움이 된다면 자유롭게 짐승과 교제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짐승의 습관을 들이지 않고 이 단계에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바벨과 짐승 사이에서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이것을 추정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님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미국이 아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미래의 정치적 희망임을 기억하십시오. 미국이 아무리 하나님의 도성을 섬겼더라도 그 자체가 인간의 도시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찬례는 우리의 희생적인 잔치임을 기억하십시오.

미국 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기독교인을 미국주의로 징계해 왔으며, 이로 인해 기독교인이 미국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순조로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미국주의를 회개하고 순교자를 양성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순교자, 즉 증인의 원래 의미와 후자의 의미에서 순교자인 신자, 제국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양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신자를

양성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훔서와 오바다서에서 하나님께서 앗수르와 에돔에 관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한 역사적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루시는 방법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에 대한 모든 악, 모든 폭력, 모든 저항에 맞서 가져오실 궁극적인 정의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12장에 관한 강의 시리즈에 있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오바다에 관한 강의 23입니다.